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전색깔은 보라색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전교인 가족 캠프 신청과 캠프내 액티비티에 대한 신청을 다음 주 까지 받습니다. 미리 계약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을 받는 것이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4. 예배 직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건은 김경헌 목사 사역 연임안입니다.
5. KPCA 중앙노회 : 3월 11-12일, 일리노이 북부교회, 김경헌 목사 참석
6.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12일 : 김유빈
 - 15일: Joe Milan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임도영 / 설교번역: 최혜리
- 3월 안내 및 봉사: 어벤저스 목장

*향후 교회 일정

- 3월 정기심방 : 주나 목장
- 전교인 가족캠프: 6월 8-9(토,주), Prairie River Camp

* 성서일과 Lectionary (제 10주)

민 21:4-9 / 시편 107:1-3, 17-22 / 엡 2:1-10/ 요 3: 14-21

교회세운날 2017.6.11

23-10

3월 10일 (사순절 넷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on Zoom
마지막 주 수요일은 목자모임으로 대체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현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히 4:15-16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김보현 형제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학생 및 교사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2장 13-22절 ——— 인도자

설교 —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 김경현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현 목사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어머니의 품, 교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교회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는 의미는 모두가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교회는 놀이터였습니다. 집과 바로 이웃한 교회는 널찍한 마당이 있었고 또한 그곳에는 넉넉하고 너른 마음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죠. 그분들은 항상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집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간식들을 대접해 주시기도 했죠. 예배당 안의 의자들 밑에 숨어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고 교회의 큰 기둥을 이용해 나이 먹기라는 놀이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목사님께서 예배당의 난로에 불을 지펴주시면 웅기 종기 모여 앉아 그 따스함을 즐기곤 했죠. 겨울 난로만큼 교회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교회 어른들과 함께 중국 감숙성의 산골 오지 소수민족을 돕는 의료선교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선교를 마치며 감숙성 란저우라는 도시의 한 호텔에서 모두 함께 가족의 시간이라는 공동체의 나눔을 가졌습니다. 벽찬 선교의 현장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과 이곳에 계속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제가 이듬해에 교회의 파송을 받아 평신도 선교사로 그 땅을 다시 밟게 되었죠. 그들은 검증되지 않은 한 명의 대학생을 신뢰하여 보내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교회가 한 명의 선교사를 잉태하고 그를 낳아 선교지에 보내본 경험은 의료선교에 동참했던 모두가 느끼는 감격이었습니다. 제 지난 삶을 돌아보니 교회는 그야말로 저에게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가 저를 길렀으며 저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의 순교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 이미지를 통해 교회를 어머니로 소개했습니다. 그의 글을 간단히 인용해 봅니다. “교회의 자궁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고, 교회의 젖을 먹고 양육되며, 교회의 숨결을 호흡하며 소생한다.…만일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어머니만큼 이타적인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사람이 자기를 타자에게 선물로 줌을 통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몸담은 사람들은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 자란 아이들과도 같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존재로 자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라도 건강한 교회에 매주일 참석하다보면 그는 교회의 품속에서 거듭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널찍한 교회의 품에서 놀다 어느새 목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만난 선교의 동역자들은 평생지기로 지내는 제 2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교회에 몸담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유는 어머니된 교회의 품을 더 많은 이들에게 맛보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